

『캐비닛의 비밀』  
: 국회의원 이재정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이재정 지음, 전진한 기획, 한티재, 2018

박종연\*

캐비닛의 비밀과 기록의 힘

2017년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키워드가 중심이었다. 그리고 키워드를 이끄는 힘은 ‘기록’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지정 기록물 지정문제, 청와대 캐비닛 문건, 블랙리스트 사건 등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을 통해서 증거 되었다. 이 책은 이중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 계기와 경과를 밝히면서 저자가 ‘기록’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뒤지면서 밝혀낸 적폐의 증거들을 담고 있다.

『캐비닛의 비밀』은 제목만으로는 저자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서 열람 불가능한 비밀기록을 필사해 그 내용을 세상에 공개하는 장편 서사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제목이 주는 임팩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책을 접하는 사람들로서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비화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직접 이기(移記)하면서까지 저자

---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운영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박사수료.

가 알려야 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속에 숨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란다. 기자들이나 학자들이 앞 다투어 기록들을 연구하고 발췌해, 우리 오욕의 시대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내길 바란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즉 저자는 ‘정보의 공개와 이용’을 통해 불편부당함에 대한 저항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하고자 한 것이다. 기록은 생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은 기록의 이용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제도와 문화가 바로서길 바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기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제2롯데월드 건설, 세월호, 메르스 사태, 가슴기 살균제 문제 등의 문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것이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단죄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록관리·정보공개 전문가들은 이 책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비단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남들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치부하면 안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얼마나 충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 이 책에는 담겨있다.

## 기록관리의 역사 돌아보기

한편으로 『캐비닛의 비밀』은 ‘기록관리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이 책 기획자의 전작인 『대통령 기록전쟁』이 기록 관리의 역사를 대통령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풀어낸 것이라면, 『캐비닛의 비밀』은 그 책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 정보공개 전문가 그리고 역사학자 등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되었는

지 대담자들의 경험을 통해 알게 해준다. 참여연대를 통해 시작된 기록관리·정보공개 운동, 기록관리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학문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한 에피소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대통령기록물제도의 수난 그리고 지난 9년간 기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기록관리 문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기록 관리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하는 부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짧게 언급된 내용으로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보고는 오히려 정식기록으로 등록하지 않는 관행이 있습니다.”, “나중에 정식 시스템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담당직원 개인 컴퓨터에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이 잘 관리되고, 그것을 통해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해석을 통해서 정확한 역사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에 사회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등의 내용은 지금까지 기록관리가 제도적으로만 완성되었을 뿐 문화적으로는 정착되지 못했음을 설명해 준다.

기록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록관리분야는 인프라 확충에 한정되어 양적인 성장만을 이룬 상태이다. ‘기록’이라는 문화에 대한 수요층의 지적 수준과 욕구는 성장했지만, 문화의 공급자는 과거의 틀에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특히 기록하는 문화, 이용하는 문화, 공유하는 문화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젠 기록관리 분야도 투자의 대상과 방법을 다시 한 번 진진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1)</sup>

---

1) 기록관리의 혁신의 기본 방향을 ‘모두와 함께 하는 기록관리’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는 김익한의 논문은 기록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록관리의 투자 대상과 방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익한, 2018, 「왜 다시 기록관리 혁신인가?: 소통, 기술, 협치를 향해」, 『기록학연구』 55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기록이 세상을 바꾸는 증거이고 원동력이며, 남겨진 기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만큼 국민 모두가 기록에 대한 관심과 기록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책은 ‘기록’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무게를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왜 기록해야 하고 왜 남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캐비닛 기록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해시켜준다. 바로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가십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기록전문가들이 전문가로서 다가가지 못했던 기록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더 쉽게 이해시키는 또 하나의 기록관리 대중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듯하다.